

初唐四傑 五言(七言)絶句 形式 分析*

安炳國**

目 录

I. 序論
II. 本論
1. 王勃 五言(七言)絶句 形式 分析
2. 楊炯 五言絶句 形式 分析
3. 盧照隣 五言(七言)絶句 形式 分析
4. 駱賓王 五言(七言)絶句 形式 分析
5. 平仄 分析
6. 拗救 分析
7. 下三平(下三仄) 및 孤平(孤仄) 分析
8. 對仗 分析
9. 用韻 分析
III.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I. 序論

절구는 ‘絶’이 ‘截’의 뜻이므로 ‘截句’라고도 하며 율시의 반을 취한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1) 한편 왕력은 <聲調四譜>의 원문 가

* 이 논문은 2018년도 2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韓國放送通信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1) 王力, 『漢語詩律學』(上海教育出版社, 1985) p.34

운데 ‘절구를 증가시켜서 율시를 이룬 것이지 율시를 줄여서 절구를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인용하면서 절구가 율시 보다 먼저 나왔다는 견해도 있음을 밝혔다.²⁾

절구의 형식이 율사에서 절반을 자른 것이든 4구에서 늘린 것이든지 간에 4구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구는 오언 4구의 악부 형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 胡應麟은 『詩藪』에서 ‘당 오언절구는 초당과 성당 이전에 악부 형식으로 많이 지었고 초당에 이르기까지는 단지 남조의 여풍을 계승하였다. 한편 칠언절구 형식은 오언절구와 달리 당에서 비롯되었지 악부에 의존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시품회』에서는 <협슬가>, <오서곡>, <원시행>을 절구의 시조라고 말하였다.³⁾ 호응린씨는 오언절구의 리듬과 풍격은 이미 한대 악부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남조 민요 단가에 이르러 그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칠언절구는 당대에 들어와서 근체시 형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필자는 초당의 절구를 연구함에 있어 초당사걸의 작품을 통해서 근체 절구의 시작과 변곡점을 찾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창작한 작품 수량을 조사해보면 사걸의 오언절구와 칠언절구는 모두 합해서 64수가 된다. 이러한 작품의 수량은 사걸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면서 근체시 시율을 확립했다고 평가하는 심전기와 송지문이 제작한 작품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수량이 많다.⁴⁾ 특히 왕발의 경우 오언절구 형식의 작품이 34수가 되어 근체 형식을 가늠하는데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칠언절구의 경우는 사걸이 제작한 작품을 전부 합해도 12수에 불과하여 근체 형식의 확립 여부를 따지기에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⁵⁾

2) 왕력, 앞의 책 p.35

3) 胡應麟, 『詩藪』 p.344(廣文書局印行, 臺灣): 唐五言絕初盛前多作樂府, 然初唐只是陳隋遺響. 七言絕體制自唐不專樂府, -- 品彙謂挾瑟歌, 烏棲曲, 怨詩行爲絕句之祖.

黃盛雄著, 『唐人絕句研究』(文史哲出版社, 1979) p.1-4

4) 송지문은 오언절구 13수, 칠언절구 4수, 심전기는 오언절구 3수, 칠언절구 5수가 전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민간 남조 악부 형식에서 출발한 4구시 형식이 초당에 이르러 근체 절구로 확립되는 과정과 시율 확립에 끼친 사건의 문학적 가치를 탐구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결 오언(칠언)절구 64 수 대한 평측 격식을 전수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측 격식을 바탕으로 하여 평측, 점대, 대장, 압운의 상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매 작품 마다 이러한 근체 시율 격식을 여부를 검토하여 근체 절구와 고체 절구 여부를 판정하였다.

II. 本論

1. 王勃 五言(七言)絶句 形式 分析

오언율시는 8구로 이루어졌지만 평측의 변화는 ‘a’식(측측평평측), ‘A’식(측측평평평), ‘b’식(평평평측측), ‘B’식(평평측측평)의 네 종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측두(첫 구의 두 번째 운자가 측성으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평두(첫 구의 두 번째 운자가 평성으로 시작)하는지 여부, 수구압운(첫째 구의 마지막 운자를 평성으로 압운)인지 아니면 수구불압운(첫째 구 마지막 운자를 압운하지 않음)인지에 따라 다시 ‘측기식 수구불압운’(aB, bA, aB, bA), ‘측기식 수구압운’(AB, bA, aB, bA), ‘평기식 수구불압운’(bA, aB, bA, aB), ‘평기식 수구압운’(BA, aB, bA, aB)의 4가지 평측 배치 격식이 생겨난다. ⁶⁾

오언절구는 오언율시 8구를 절취하여 4구로 만든 것이다. 이 경우 절취 방법에는 네 종류가 있다. 즉 ㉠율시의 수련과 미련 두 연을 절취한 것 ㉡율시

시형/작자	왕발	양형	노조린	낙빈왕	총계
오언절구	34	1	11	6	52
5) 칠언절구	6	0	5	1	12

6) 왕력, 앞의 책 p.74 -75

의 뒤쪽 반을 절취한 것 ㉔율시의 앞쪽 반을 절취한 것 ㉕율시의 가운데 두 연을 절취한 것이다. 이 네 종류 중에서 ㉑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율시의 수련과 미련은 대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절구는 특히 칠언절구의 경우 대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㉒과 ㉓의 경우가 많고 ㉔의 경우가 가장 적다. 7) 오언절구는 오언율시의 평측 격식 배치에 준하여 절반을 절취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네 종류의 절취 방식에 따라 평측 배치와 대장의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왕발 오언절구의 평측, 대장, 점대, 압운의 배치 상황을 조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晚留鳳州>

寶雞辭舊役 측평평측측 仙鳳歷遺墟 평평측평평
去此近城關 측측평평측 靑山明月初 평평평측평

평격식 수구불압운, 평성 ‘漁’韻(墟, 初)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먼저 1연의 대구 제2자가 ‘측’ 대신에 ‘평’을 써서 拗句가 되었다. 이에 대해 왕력은 오언 근체시에서 제2자, 제4자, 제6자는 바로 절주점에 해당됨으로 본래 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8) 1연의 출구 제1자가 ‘평’ 대신에 ‘측’을 쓰고 다시 대구의 제1자에 ‘측’대신에 ‘평’을 써서 對句相救에 해당한다. 9) 대구상구관 출구 제3자에 평성을 써야 하는데 측성을 썼다면 대구 제3자에 측성 대신 평성을 써서 구하는 것이다. 10) 2연의 대구 제3자는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생겨났다. 왕력은 오언의 제3자 및 칠언의 제5자의 요는 ‘乙種拗’라고 칭하며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피하지 못하면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11) 따라서 오언의 제3자 또는 칠언의 제5자의 출구에

7) 왕력, 앞의 책 p.34

8) 왕력, 앞의 책 p.90

9) 평평평측측, 측측측평평 →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10) 왕력, 앞의 책 p.91

서 평성을 써야 하는데 측성을 쓰게 되면 대구에서 측성 대신에 평성을 써서 요구해야 한다. 12) 그리고 1연에서 ‘평-평’으로 실대, 1연과 2연 사이에 ‘평-측’으로 실점 현상이 있다. 출구와 대구의 제2자가 평측이 대를 이루지 않으면 실대라고 하고, 앞 연의 대구와 뒷 연의 출구 제2자가 평측이 서로 같지 않으면 실점이라고 한다. 13) 이처럼 오언절구는 오언율시를 반으로 줄인 것과 같으므로 오언절구의 평측도 오언율시의 평측에 의거하여 ‘粘對’의 규칙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14) 대장을 보면 1연은 ‘寶雞 - 辭舊, 辭 - 役, 舊役 - 遺墟’의 관대, 2연은 ‘212/221’로 산체가 된다.

<羈春>

客心千里倦 측평평측측 春事一朝歸 평측측평평
還傷北園裏 평평측평측 重見落花飛 평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微韻(歸,飛)’으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1연의 출구 제1자와 대구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2연의 출구 ‘평평측평측’은 제3자에 평성으로 써야 할 자리에 측성을 써서 ‘拗’가 되면 측성으로 써야 할 제4자에 평성을 써서 拗를 救한다(평평평측측 → 평평측평측). 외형상으로 제4자가 고평이 된 것 같으나 요구를 목적으로 평측을 호환했기 때문에 고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5) 왕력은 ‘평평측평측’은 대부분 미련의 출구에 나타나며 이 또한 시인들의 풍조였다고 하였다. 16) 이 경우 동일한 시구 안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本句自句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1) 왕력, 앞의 책 p.90
12) 왕력, 앞의 책 p.94 : 측측평평측(a), 평평측측평(B) → 측측측평측, 평평평측평
13) 왕력, 앞의 책 p.112
14) 왕력, 앞의 책 p.72
15) 姜聲尉, 「拗와 拗救」, 『中國文學』 제 23집 p.62
16) 왕력, 앞의 책 p.100

왕력은 이러한 구법을 ‘평측의 특수형식’이라고 부르면서 ‘요’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17) 2연의 대구 제1자에 ‘평’ 대신에 ‘측’을 쓴 것은 ‘甲種拗’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왕력은 오언의 ‘A’식(측측측평평), ‘a’식(측측평평측), ‘b’식(평평평측측)의 제1자의 ‘拗’를 ‘甲種拗’라고 불렀다. 이 경우 시인은 감중요를 피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18) 그리고 1연과 2연 사이에 ‘A-b’가 되어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客心 - 春事, 千里 - 一朝, 倦 - 歸’의 관대, 2연은 ‘221/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林塘懷友〉

芳屏畫春草 평평측평측 仙杼織朝霞 평측측평평
何如山水路 평평평측측 對面卽飛花 측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麻韻(霞, 花)’으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먼저 1연의 출구는 <晚留鳳州>시에서 이미 살펴 본 바 있듯이 ‘평평측평측’ 형식의 본구자구에 해당하며, 1연의 대구 제1자는 감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연과 2연이 모두 ‘bA’가 되어 ‘측-평’으로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芳屏 - 仙杼, 畫 - 織, 春草 - 朝霞’의 공대, 2연은 ‘221/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山扉夜坐〉

抱琴開野室 측평평측측 攜酒對情人 평측측평평
林塘花月下 평평평측측 別似一家春 측측측평평

17) 왕력, 앞의 책 p.100

18) 왕력, 앞의 책 p.90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眞’韻(人, 春)으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먼저 1연의 출구와 대구에서 제1자는 평측을 서로 바꾸어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1연과 2연이 모두 ‘bA’가 되어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抱琴 - 攜酒, 開 - 對, 野室 - 情人’의 공대, 2연은 ‘221/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春莊>

山中蘭葉徑 평평평측측 城外李桃園 평측측평평
豈知人事靜 측평평측측 不覺鳥聲喧 측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元’韻(園, 喧)으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대구 제1자와 2연의 출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연과 2연이 모두 ‘bA’가 되어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山中 - 城外, 蘭葉 - 李桃, 徑 - 園’의 공대, 2연은 ‘豈知 - 不覺, 人事 - 鳥聲, 靜 - 喧’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春遊>

客念紛無極 측측평평측 春淚倍成行 평측측평평
今朝花樹下 평평평측측 不覺戀年光 측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陽’韻과 ‘庚’韻으로 압운, ‘a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대구 제1자 ‘평’은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1연의 대구에 ‘평평측측평’(B) 대신에 ‘측측측평평’(A)을 써서 1연과 2연 사이에 실점과 실대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客念 - 春淚, 紛 - 倍, 無極 - 成行’의 관대, 2연은 ‘221/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春園〉

山泉兩處晚 平平측측측 花柳一園春 평측측평평
 還持千日醉 평평평측측 共作百年人 측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眞’韻(春, 人)으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3자가 ‘평’ 대신에 ‘측’을 써서 하삼측이 되었다. 이에 대해 왕력은 乙種拗救 ‘bA’식은 특히 드물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A’식에서 제3자를 측성 대신 평성을 쓰게 되면 하삼평이 되어 고평의 구식과 섞인다고 하였다. 19) 왕발의 경우는 대구 제3자에 ‘평’으로 구하지 않고 ‘측’을 써서 하삼평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1연의 대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1연과 2연이 모두 ‘bA’가 되어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山泉 - 花柳, 兩處 - 一園, 晚 - 春’의 공대, 2연은 ‘還持 - 共作, 千日 - 百年, 醉 - 人’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林泉獨飲〉

丘壑經塗賞 평측평평측 花柳遇時春 평측측평평
 相逢今不醉 평평평측측 物色自輕人 측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眞’韻(春, 人)으로 압운, ‘a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1자는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왕력은 ‘B’식(평평측측평)의 제1자와 칠언 제3자에 측성을 사용했을 때에만 ‘요’라고 했고, ‘B’식 이외에 오언 제1자와 칠언 제1자와 제3자는 평측을 따지지 않으므로 ‘요’라고 하지 않았다. 20) 따라서 ‘평측평평측’

19) 왕력, 앞의 책 p.95 : 평평평측측(b), 측측측평평(A) → 평평측측측, 측측평평평

20) 왕력, 앞의 책 p.90

의 경우 요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고측 현상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대구의 제1자 ‘평’은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구의 경우 ‘평평측측평’(B) 대신에 ‘측측측평평’(A)을 써서 1연에서 실대, 1연과 2연 사이에 실점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丘壑 - 花柳, 經 - 一遇, 塗賞 - 時春’의 관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登城春望>

物外山川近 측측평평측 晴初景靄新 평평측측평
芳郊花柳遍 평평평측측 何處不宜春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眞’韻(新,春)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의 대구 제1자 ‘평’은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측기식 작품과 달리 2구에 ‘평평측측평’(B)을 써서 실점과 실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대장을 보면 1연은 ‘物外 - 晴初, 山川 - 景靄, 近 - 新’의 공대, 2연은 ‘221/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他鄉敘興>

綴葉歸煙晚 측측평평측 乘花落照春 평평측측평
邊城琴酒處 평평평측측 俱是越鄉人 측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眞’韻(春,人)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2구에 ‘평평측측평’(B)을 써서 실점과 실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대장을 보면 1연은 ‘綴葉 - 乘花, 煙晚 - 落照, 晚 - 春’의 공대, 2연은 ‘221/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夜興〉

野煙含夕渚 측평평측측 山月照秋林 평측측평평
 還將中散興 평평평측측 來偶步兵琴 평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眞’韻(春, 人)으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1자와 대구의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2연의 대구 제1자는 갑종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연과 2연이 모두 ‘bA’가 되어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野煙 - 山月, 含 - 照, 夕渚 - 秋林’의 공대, 2연은 ‘212/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臨江二首〉

泛泛東流水 측측평평측 飛飛北上塵 평평측측평
 歸驂將別棹 평평평측측 俱是倦遊人 측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眞’韻(盡, 人)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2구에 ‘평평측측평’(B)을 써서 실점과 실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泛泛 - 飛飛, 東流 - 北上, 水 - 塵’의 공대, 2연은 ‘212/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去驂嘶別路 측평평측측 歸棹隱寒洲 평측측평평
 江臯木葉下 평평측측측 應想故城秋 평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尤’韻(洲, 秋)으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1자와 대구의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2연의 출구 제3자에 ‘평’ 대신에 ‘측’을 써서 하삼측이 되었지만 출구 제

3자에 ‘측’으로 구하지 않아 乙種拗救 ‘bA’식 해당하지 않는다. 2연의 대구 제 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1연과 2연이 모두 ‘bA’가 되어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去驂 - 歸棹, 嘶 - 隱, 別路 - 寒洲’의 공대, 2연은 ‘221/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江亭夜月送別二首>

江送巴南水 평측평평측 山橫塞北雲 평평측측평
 津亭秋月夜 평평평측측 誰見泣離羣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文’韻(雲, 群)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1자는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발생 하였지만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연의 대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역시 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江送 - 山橫, 巴南 - 塞北, 水 - 雲’의 공대, 2연은 ‘221/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亂煙籠碧砌 측평측측측 飛月向南端 평측측평평
 寂寂離亭掩 측측평평측 江山此夜寒 평평측측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寒’韻(端, 寒)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1자와 대구의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1연 출구의 제3자가 ‘평’ 대신에 ‘측’을 써서 하삼측이 되었지만 출구 제 3자에 ‘측’으로 구하지 않아 乙種拗救 ‘bA’식 해당하지 않는다. 대장을 보면 1 연은 ‘亂煙 - 飛月, 籠 - 向, 碧砌 - 南端’의 관대, 2연은 ‘221/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別人四首〉

久客逢餘閨 측측평평측 他鄉別故人 평평측측평
自然堪下淚 측평평측측 誰忍望征塵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眞’韻(人, 塵)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의 출구 제1자와 대구의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久客 - 他鄉, 逢 - 別, 餘閨 - 故人’의 관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江上風煙積 평측평평측 山幽雲霧多 평평평측평
送君南浦外 측평평측측 還望將如何 평측평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歌’韻(多, 何)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 제3자가 ‘측’ 대신에 ‘평’이 되어 고측 현상이 생겨났다. 그리고 2연의 출구 제1자와 대구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2연 대구의 경우 제3자가 ‘측’이어야 하는데 ‘평’이 되어 고평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출구 제3자에 ‘측’으로 구하지 않아 乙種拗救 ‘bA’식 해당하지 않는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江上 - 山幽, 風煙 - 雲霧, 積 - 多’의 공대, 2연은 ‘221/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桂船初不駐 측평평측측 蘭筵幸未開 평평측측평
林塘風月賞 평평평측측 還待故人來 평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灰’韻(開, 來)으로 압운, ‘b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1자와 2연의 대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연의 평측이 ‘bB’가 되어 평두를 범하게 되어

실대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桂輶 - 蘭筵, 初 - 幸, 不駐 - 未開’의 공대, 2연은 ‘221/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霜華淨天末 평평측평측 霧色籠江際 측측측평측
 客子常畏人 측측평측평 何爲久留滯 평평측평측

평기식 수구불압운, 측성 ‘霽’韻(際, 滯)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평평측평측’은 본구자구에 해당한다. 1연의 대구 제3자는 ‘평’ 대신에 ‘측’을 써서 고평 현상이 생겨났다. 2연 출구의 제3자와 제4자는 ‘측평’에서 ‘평측’으로 호환하여 본구자구하였고, 2연 대구의 경우도 제3자와 제4자에서 ‘평측’ 대신에 ‘측평’으로 호환하여 본구자구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霜華 - 霧色, 淨 - 籠, 天末 - 江際’의 공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贈李十四四首>

野客思茅宇 측측평평측 山人愛竹林 평평측측평
 琴尊唯待處 평평평측측 風月自相尋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侵’韻(林, 尋)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2연의 대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野客 - 山人, 思 - 愛, 茅宇 - 竹林’의 공대, 2연은 ‘琴尊 - 風月, 唯 - 自, 待處 - 相尋’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小徑偏宜草 측측평평측 空庭不厭花 평평측측평
 平生詩與酒 평평평측측 自得會仙家 측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麻’韻(花, 家)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小徑 - 空庭, 偏 - 不, 宜草 - 厭花’의 공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亂竹開三逕 측측평평측 飛花滿四鄰 평평측측평
從來揚子宅 평평평측측 別有尙玄人 측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眞’韻(隣, 人)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亂竹 - 飛花, 開 - 滿, 三逕 - 四鄰’의 공대, 2연은 ‘從來 - 別有, 揚子 - 尙玄, 宅 - 人’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風筵調桂軫 평평평측측 月徑引藤杯 측측측평평
直當花院裏 측측평평측 書齋望曉開 평평측측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灰’韻(杯, 開)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風筵 - 月徑, 調 - 引, 桂軫 - 藤杯’의 공대, 2연은 ‘221/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早春野望>

江曠春潮白 평측평평측 山長曉岫靑 평평측측평
他鄉臨眺睨 평평평측측 花柳映邊亭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靑’韻(靑, 亭)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1자와 2연의 대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救하지 않아도 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江曠 - 山長, 春潮 - 曉岫, 白 - 靑’의 공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山中>

長江悲已滯 평평평측측 萬里念將歸 측측측평평
 況屬高風晚 측측평평측 山山黃葉飛 평평평측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微’韻(歸, 飛)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의 대구 제3자는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음중요는 출구 제3자에서 ‘측’으로 구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대장을 보면 1연은 ‘長江 - 萬里, 悲 - 念, 已滯 - 將歸’의 공대, 2연은 ‘221/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冬郊行望>

桂密巖花白 측측평평측 梨疎林葉紅 평평평측평
 江臯寒望盡 평평평측측 歸念斷征篷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東’韻(紅, 篷)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대구 제3자는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출구의 제3자에 ‘평’ 대신에 ‘측’을 써서 구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2연의 대구 제1자는 감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桂密 - 梨疎, 巖花 - 林葉, 白 - 紅’의 공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寒夜思友三首>

久別侵懷抱 측측평평측 他鄉變容色 평평측평측
 月下調鳴琴 측측측평평 相思此何極 평평측평측

측기식 수구불압운, 측성 ‘職’韻(色, 極)으로 압운, ‘ab,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대구와 2연의 대구 ‘평평측평측’은 본구상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1연과 2연 사이에 ‘aA’가 되어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212/212’의 산체,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雲間征思斷 평평평측측 月下歸愁切 측측평평측
鴻鴈西南飛 평측평평평 如何故人別 평평측평측

평기식 수구불압운, 측성 ‘屑’韻(切, 別)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2연의 출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되고, 제3자는 ‘측’ 대신에 ‘평’을 써서 하삼평이 되었다. 이러한 을중요는 대구 제3자에 ‘측’으로 구해야 하는데, 대구에서 ‘측평’으로 호환하여 본구자구하면서 동시에 대구상구 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雲間 - 月下, 征思 - 歸愁, 斷 - 切’의 공대, 2연은 ‘221/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朝朝翠山下 평평측평측 夜夜蒼江曲 측측평평측
復此遙相思 측측평평평 淸尊湛芳綠 평평측평측

평기식 수구불압운, 측성 ‘沃’韻(曲, 綠)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평평측평측’은 본구자구에 해당한다. 2연의 출구도 제3자가 ‘측’ 대신에 ‘평’을 써서 하삼평이 되었다. 이 경우 제1수와 동일하게 대구에서 ‘측평’으로 호환하여 본구자구하면서 동시에 대구상구 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朝朝 - 夜夜, 翠山 - 蒼江, 下 - 曲’의 공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始平晚息>

觀關長安近 측측평평측 江山蜀道賒 평평측측평

客行朝復夕 측평평측측 無處是鄉家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麻’韻(賒, 家)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2연의 출구 제1자와 대구 제1자는 평측을 서로 바꾸어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觀闕 - 江山, 長安 - 蜀道, 近 - 賒’의 공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扶風晝屈離京浸遠>

帝里金莖去 측측평평측 扶風石柱來 평평측측평
山川殊未已 평평평측측 行路方悠哉 평측평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灰’韻(來, 哉)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의 대구 제3자가 ‘측’ 대신에 ‘평’을 써서 하삼평이 되었다. 이 경우 출구 제3자에 ‘측’으로 요구하지 않아 乙種拗救 ‘bA’식 해당하지 않는다. 2연의 대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帝里 - 扶風, 金莖 - 石柱, 去 - 來’의 공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普安建陰題壁>

江漢深無極 평측평평측 梁岷不可攀 평평측측평
山川雲霧裏 평평평측측 遊子幾時還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刪’韻(攀, 還)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1자와 2연의 대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江漢 - 梁岷, 深 - 不, 無極 - 可攀’

의 관대, 2연은 '221/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九日〉

九日重陽節 측측평평측 開門有菊花 평평측측평
不知來送酒 측평평측측 若箇是陶家 측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麻'韻(花, 家)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의 출구 제1자는 갑종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212/212'의 산체,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述懷擬古詩〉

僕生二十祀 측평측측측 有志十數年 측측측측평
下策圖富貴 측측평측측 上策懷神仙 측측평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先'韻(年, 仙)으로 압운, 'bA, a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3자가 '평' 대신에 '측'을 써서 하삼측이 되었고, 1연의 대구도 제4자가 '평' 대신에 '측'을 써서 '측측측측'이 되어 拗句가 되었다. 2연의 출구도 제4자가 '평' 대신에 '측'을 써서 고평이 되었고, 2연의 대구도 제3자가 '측' 대신에 '평'을 써서 하삼평이 되었다. 이 경우 출구 제3자에서 '측'으로 구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대장을 보면 1연은 '221/221'의 산체, 2연은 '下策 - 上策, 圖 - 懷, 富貴 - 神仙'의 공대를 이루고 있다.

칠언율시는 오언율시의 연장이므로 측두에는 평성자 두 개를 구수에 더하여 평두로 만들고, 평두에는 측성자 두 개를 구수에 더하여 측두로 만들어 'a'

식(평평측측평평측), 'A'식(평평측측측평평), 'b'식(측측평평평측측), 'B'식(측측평평측측평)의 네 종류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오언율시와 같이 측기식과 평기식으로 나누어 평측을 배치해 보면 '평기식 수구압운'(AB, bA, aB, bA), '평기식 수구불압운'(aB, bA, aB, bA), '측기식 수구압운'(BA, aB, bA, aB), '측기식 수구불압운'(bA, aB, bA, aB)의 4가지 평측 배치 격식이 생겨난다. 21) 칠언절구는 칠언율시의 평측 배치에 준하여 절반을 절취한 것으로 네 가지 절취 방식에 따라 평측 배치와 대장의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왕발의 칠언절구 평측, 대장, 점대, 압운의 상황을 조사해 보면 아래와 같다.

<秋江送別二首>

早是他鄉值早秋 측측평평평측평 江亭明月帶江流 평평평측측평평
已覺逝川傷別念 측측측평평측측 復看津樹隱離舟 측평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압운, 평성 '麻'韻(秋, 流, 舟)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5자가 '측'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생겨났다. 이 경우 칠언 제5자의 요는 을중요라고 칭하는데 가능하면 피하고 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해주어야 한다. 22) 그리고 1연 대구의 제3자와 2연 출구 제3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23) 2연의 대구는 '평평측측측평평'(A)의 격식에서 제1자 '평' 대신에 '측'을 쓰고 대신에 제3자에 '측' 대신에 '평'을 써서 본구자구하였다. 24) 그리고 1연과 2연 사이에 'Bb'가 되어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早是 - 江亭, 他鄉 - 明月, 值 - 帶, 早

21) 왕력, 앞의 책 p.75-76
22) 왕력, 앞의 책 p.90
23) 왕력, 앞의 책 p.90 : 칠언 'A, a, b'식의 제3자의 요는 갑중요라고 칭한다. 시인은 갑중요를 피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24) 왕력, 앞의 책 p.92 : 칠언 제1자에 평성을 써야 하는데 측성을 쓴 후 제3자에 측성 대신에 평성을 쓴 것 : 평평측측측평평 → 측평평측측평평

秋 - 江流'의 관대, 2연은 '已覺 - 復看, 逝川 - 津樹, 傷 - 隱, 別念 - 離舟'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歸舟歸騎儼成行 평평평측측평평 江南江北互相望 평평평측측평평
誰謂波瀾纔一水 평측평평평측측 已覺山川是兩鄉 측측평평측측평

평기식 수구압운, 평성 '陽'韻(行, 望, 鄉으)로 압운, 'AA, b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와 대구의 제3자는 갑종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연의 출구 제1자도 갑종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평측 격식이 'AA, bB'가 되어 평두와 측두를 범하게 되어 실점과 실대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歸舟 - 江南, 歸騎 - 江北, 儼 - 互, 成行 - 相望'의 공대, 2연은 '已覺 - 復看, 逝川 - 津樹, 傷 - 隱, 別念 - 離舟'의 공대를 이루고 있다.

<蜀中九日>

九月九日望鄉臺 측측측측측평평 他席他鄉送客杯 평측평평측측평
人情已厭南中苦 평평측측평평측 鴻鴈那從北地來 평측측평측측평

측기식 수구압운, 평성 '灰'韻(臺, 杯, 來)로 압운, 'BB,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 출구의 제4자가 '평' 대신에 '측'을 써서 '측측측측측'이 되어 拗句가 되었다. 그리고 1연의 대구 제1자는 갑종요가 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2연의 대구 제1자에 '측' 대신 '평'을 쓰고 다시 제3자에 '평'대신 '측'을 써서 본구자구하였다. 평측 격식이 'BB'가 되어 측두를 범하게 되어 실대와 실점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九月 - 他席, 九日 - 他鄉, 望鄉 - 送客, 臺 - 杯'의 관대, 2연은 '人情 - 鴻鴈, 已厭 - 那從, 南中 - 北地, 苦 - 來'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寒夜懷友雜體二首>

北山煙霧始茫茫 측평평측측평평 南津霜月正蒼蒼 평평평측측평평
秋深客思紛無已 평평측평평평측 復值征鴻中夜起 측평평평평측측

1연은 평성 ‘陽’韻(茫, 蒼), 2연은 측성 ‘紙’韻(已, 起)으로 환운, ‘A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1연의 출구 제1자에 ‘평’ 대신 ‘측’을 쓰고 다시 제3자에 ‘측’대신 ‘평’을 써서 본구자구하였다. 1연의 대구 제3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2연의 출구 제4자가 ‘측’ 대신에 ‘평’을 써서拗句가 되었고, 2연 대구도 제2자에 ‘측’ 대신에 ‘평’을 써서 요구가 되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北山 - 南津, 煙霧 - 霜月, 始 - 正, 茫茫- 蒼蒼’의 공대, 2연은 ‘2212/2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復合重樓向浦開 측측평평측측평 秋風明月度江來 평평평측측평평
故人故情懷故宴 측평측평평측측 相望相思不相見 평측평평평측측

1연은 평성 ‘灰’韻(開, 來), 2연은 측성 ‘霰’韻(宴, 見)으로 환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1연의 대구 제3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2연의 출구 제1자와 대구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2연의 출구 제4자와 제6자는拗句에 해당한다. 2연의 대구 ‘평측평평측평측’에서 ‘측평측’은 본구자구에 해당한다. 한편 왕력은 이것을 평측상의 특수형식이라고 부르고 서술의 편의를 위해 子類特殊形式이라고 칭하였다. 자류특수형식은 ‘측측평평평측측’으로 써야 할 칠언구를 ‘측측평평평측측’으로 바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복절 두글자의 평측을 뒤바꿔서 본래 ‘평측’이던 것을 ‘측평’으로 한 것이다. 25) 대장을 보면 1연은 ‘復合 - 秋風, 重樓 - 明月, 向浦 - 度江, 開 -

25) 왕력, 앞의 책 p. 100 : 평측상의 특수형식은 칠언 b식의 제6자에 측성을 써야 하는데 평성을 쓴 것과 칠언 a식의 제6자에 평성을 써야 하는데 측성을 쓴 것을 가리킨다.

來'의 공대, 2연은 '2212/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河陽橋代竇郎中佳人答楊中舍〉

披風聽鳥長河路 평평평측평평측 臨津織女遙相妒 평평측측평평측
判知秋夕帶啼還 측평평측측평평 평 那及春朝攜手度 측측평평평측측

평기식 수구압운, 측성 '遇'韻(路, 妬, 度)로 압운, 'a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3자는 갑종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연의 출구 제1자에 '평' 대신 '측'을 쓰고 다시 제3자에 '측'대신에 '평'을 써서 본구자구하였다. 평측 배치가 'aa'가 되어 평두를 범하게 되어 실대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披風 - 臨津, 聽鳥 - 織女, 長河 - 遙相, 路 - 妒'의 관대, 2연은 '判知 - 那及, 秋夕 - 春朝, 帶啼 - 攜手, 還 - 度'의 공대를 이루고 있다.

2. 楊炯 五言絕句 形式 分析

〈夜送趙縱〉

趙氏連城壁 측측평평측 由來天下傳 평평평측평
送君還舊府 측평평측측 明月滿前川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先'韻(傳, 川)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대구 제3자가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연 출구의 제1자와 대구의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221/221'의 산체, 2연은 '送君 - 明月, 還 - 滿, 舊府 - 前川'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3. 盧照隣 五言(七言)絶句 形式 分析

<登玉清>

絶頂橫臨日 측측평평측 孤峰半倚天 평평측측평
 徘徊拜眞老 평평측평측 萬里見風煙 측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先韻(傳, 川)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의 출구 ‘평평측평측’은 ‘평측’이던 것을 ‘측평’으로 호환하여 분구자구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絶頂 - 孤峰, 橫 - 倚, 臨日 - 倚天’의 공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曲池荷>

浮香繞曲岸 평평측측측 圓影覆華池 평측측평평
 常恐秋風早 평측평평측 飄零君不知 평평평측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支韻(池, 知)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3자가 ‘평’ 대신에 ‘측’을 써서 하삼측이 되었다. 왕발과 마찬가지로 노조린의 경우도 대구 제3자에 ‘측’대신에 ‘평’을 써서 구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1연의 대구 제1자와 2연의 출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2연 대구의 제3자에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생겨났다. 이 경우 출구 제3자에 ‘평’ 대신에 ‘측’을 써서 구해야 하는데 왕발이나 양형과 마찬가지로 노조린도 모두 요구하지 않았다. 26)

26) 왕력, 앞의 책 p.94에서 이러한 을중요는 송인에 이르러서 구하지 않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당인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급적 구하였다고 하였다. 초당사절은 근체시 확립시기에 해당함으로 이러한 요구 방법을 강구하는데 까지 발전하지

대장을 보면 1연은 ‘浮香 - 圓影, 繞 - 覆, 曲岸 - 華池’의 공대, 2연은 ‘221/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浴浪鳥>

獨舞依磐石 측측평평측 群飛動輕浪 평평측평측
奮迅碧沙前 평측측평평 長懷白雲上 평평측평측

측기식 수구불압운, 측성 ‘漾韻(浪, 上)’으로 압운, ‘ab,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과 2연의 대구 ‘평평측평측’은 본구자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2연의 출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1연과 2연 사이에 ‘b-A’가 되어 실점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獨舞 - 群飛, 依 - 動, 磐石 - 輕浪’의 공대, 2연은 ‘奮迅 - 長懷, 碧沙 - 白雲, 前 - 上’의 공대를 이루고 있다.

<臨塔竹>

封霜連錦砌 평평평평측측 防露拂瑤塔 평측측평평
聊將儀鳳質 평평평평측측 暫與俗人諧 측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佳韻(塔, 諧)’으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대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1연과 2연 사이에 ‘bA’가 되어 실점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封霜 - 防露, 連 - 拂, 錦砌 - 瑤塔’의 공대, 2연은 ‘221/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않은 것 같다.

<含風蟬>

高情臨爽月 평평평측측 急響送秋風 측측측평평
獨有危冠意 측측평평측 還將衰鬢同 평평평측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東’韻(風, 同)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의 대구 제3자에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생겨났다. 대장을 보면 1연은 ‘高情 - 急響, 臨 - 送, 爽月 - 秋風’의 공대, 2연은 ‘獨有 - 還將, 危冠 - 衰鬢, 意 - 同’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葭川獨泛>

倚棹春江上 측측평평측 橫舟石岸前 평평측측평
山暝行人斷 평평평평측 迢迢獨泛仙 평평측측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先’韻(前, 仙)으로 압운, ‘aB, b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의 출구 제4자는 ‘측’ 대신에 ‘평’을 써서拗句에 해당한다. 2연의 평측이 ‘bB’가 되어 평두를 범하게 되어 실대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倚棹 - 橫舟, 春江 - 石岸, 上 - 前’의 공대, 2연은 ‘221/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送二兄入蜀>

關山客子路 평평측측측 花柳帝王城 평측측평평
此中一分手 측평측평측 相顧憐無聲 평측평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庚’韻(城, 聲)으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3자가 ‘평’ 대신에 ‘측’을 써서 하삼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1연 대구의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연 출구의 제1자와 대구의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2연의 출구 ‘측평측평측’은 본구자구에 해당한다. 2연 대구의 제3자는 ‘측’ 대신에 ‘평’을 써서 하삼평이 되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關山 - 花柳, 客子 - 帝王, 路 - 城’의 공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宿玄武二首>

方池開曉色 평평평측측 圓月下秋陰 평측측평평
已乘千里興 측평평측측 還撫一弦琴 평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侵’韻(陰, 琴)으로 압운, ‘b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 대구의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연 출구의 제1자와 대구의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1연과 2연 사이에 ‘A-b’가 되어 실점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方池 - 圓月, 開 - 下, 曉色 - 秋陰’의 관대, 2연은 ‘已乘 - 還撫, 千里 - 一弦, 興 - 琴’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庭搖北風柳 평평측평측 院繞南溟禽 측측평평평
累宿恩方重 측측평평측 窮秋歎不深 평평측측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侵’韻(陰, 琴)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평평측평측’은 본구자구에 해당한다. 1연 대구의 제3자는 ‘측’ 대신에 ‘평’을 써서 하삼평이 되었다. 따라서 1연의 출구 ‘평평측평측’은 본구자구인 동시에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27) 대장을 보면 1연은 ‘庭

27) 노조린의 <送二兄入蜀>시 2연을 보면 ‘측평측평측, 평측평평평’으로 동일한 평측 구식

搖 - 院繞, 北風 - 南溟, 柳 - 禽'의 공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九隴津集>

落落樹陰紫 측측측평측 澄澄水華碧 평평측평측
復有翻飛禽 측측평평평 徘徊疑曳鳥 평평평측측

측기식 수구불압운, 측성 '陌'韻(碧, 鳥)으로 압운, 'ab,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3자가 '평' 대신에 '측'을 써서 고평 현상이 생겼다. 그리고 1연 대구 '평평측평측'은 본구상구에 해당한다. 2연 출구의 제3자가 '측'대신에 '평'을 써서 하삼평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도 1연 출구와 마찬가지로 을중요에 해당하며 대구 제3자에서 '측'으로 구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1연과 2연 사이에 'b -A'가 되어 실점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落落 - 澄澄, 樹陰 - 水華, 紫 - 碧'의 공대, 2연은 '復有 - 徘徊, 翻 - 疑, 飛禽 - 曳鳥'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游昌化山精舍>

寶地乘峰出 측측평평측 香臺接漢高 평평측측평
稍覺眞途近 평측평평측 方知人事勞 평평평측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豪'韻(高, 勞)으로 압운, 'aB,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의 출구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2연 대구의 제3자가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생겨났다. 1연과 2

을 나타내고 있다.

연 사이에 ‘B-a’가 되어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寶地 - 香臺, 乘峰 - 接漢, 出 - 高’의 관대, 2연은 ‘稍覺 - 方知, 眞途 - 人事, 近 - 勞’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登封大酺歌四首〉

明君封禪日重光 평평평측측평평 天子垂衣曆數長 평측평평측측평
九州四海常無事 측평측측평평측 萬歲千秋樂未央 측측평평측측평

평기식 수구압운, 평성 ‘陽’韻(光, 長, 央)으로 압운, ‘AB,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3자와 대구의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연 출구의 제1자에 ‘평’대신에 ‘측’을 써서 고평현상이 생겨났다. 이 경우 칠언 제1자의 요는 갑중요에 해당하며 구하지 않아도 된다. 28) 평측 격식이 ‘A-a’가 되어 실점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明君 - 天子, 封禪 - 垂衣, 日重 - 曆數, 光 - 長’의 관대, 2연은 ‘九州 - 萬歲, 四海 - 千秋, 常 - 樂, 無事 - 未央’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日觀仙雲隨鳳輦 측측평평평측측 天門瑞雪照龍衣 평평측측측평평
繁絃綺席方終夜 평평측측평평측 妙舞清歌歡未歸 측측평평평측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微’韻(衣, 歸)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2연 대구의 제5자가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평현상이 생겨났다. 이 경우 칠언 제5자의 요는 을중요라고 칭하며 가급적 구해주어야 하는데, 출구 제5자에서 ‘평’ 대신에 ‘측’으로 구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29) 대장을 보면 1연은 ‘日觀 - 天門, 仙雲 - 瑞雪, 隨 - 照, 鳳輦 - 龍衣’의 공대, 2연

28) 왕력, 앞의 책 p.90

29) 왕력, 앞의 책 p.90

은 ‘繁弦 - 妙舞, 綺席 - 清歌, 方 - 歡, 終夜 - 未歸’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翠鳳逶迤登介丘 측측평평평측평 仙鶴徘徊天上遊 평측평평평측평
借問乾封何所樂 측측평평평측측 人皆壽命得千秋 평평측측측평평

측기식 수구압운, 평성 ‘尤’韻(丘, 遊, 秋)으로 압운, ‘B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와 대구의 제5자는 ‘측’ 대신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대구의 제5자에서 구해주어야 하는데 동일한 요를 범하고 있어 拗句에 해당한다. 대구의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2212/2221’의 산체, 2연은 ‘2212/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千年聖主應昌期 평평측측측평평 萬國淳風王化基 측측평평측측평
請比上古無爲代 측측측측평평측 何如今日太平時 평평평측측평평

평기식 수구압운, 평성 ‘支’韻(期, 基, 時)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2연 출구와 대구의 제3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30) 그리고 2연 출구의 제4자와 제6자는 拗句에 해당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2212/2221’의 산체, 2연은 ‘2212/2221’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九月九日登玄武山旅眺〉

九月九日眺山川 측측측측측평평 歸心歸望積風烟 평평평측측평평
他鄉共酌金花酒 평평측측평평측 萬里同悲鴻鴈天 측측평평평측평

30) 왕력, 앞의 책 p.90 : ‘A’식의 칠언 제3자의 요는 갑중요에 해당하며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측기식 수구압운, 평성 ‘先’韻(川, 烟, 天)으로 압운, ‘BA,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 제4자와 제6자는 拗句에 해당한다. 1연의 출구와 대구 제3자는 갑종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2연의 대구 제5자는 을종요에 해당되어 가급적 구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출구 제5자에서 ‘평’ 대신에 ‘측’으로 구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대장을 보면 1연은 ‘九月 - 歸心, 九日 - 歸望, 眺 - 積, 山川 - 風烟’의 관대, 2연은 ‘他鄉 - 萬里, 共酌 - 同悲, 金花 - 鴻鴈, 酒 - 天’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4. 駱賓王 五言(七言)絶句 形式 分析

〈在軍登城樓〉

城上風威冷 평측평평측 江中水氣寒 평평측측평
戎衣何日定 평평평측측 歌舞入長安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寒’韻(寒, 安)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 출구의 제1자와 2연 대구의 제1자는 갑종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城上 - 江中, 風威 - 水氣, 冷 - 寒’의 관대, 2연은 ‘221/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于易水送人〉

此地別燕丹 측측측평평 壯士髮衝冠 측측측평평
昔時人已沒 측평평측측 今日水猶寒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압운, 평성 ‘寒’韻(丹, 冠, 寒)으로 압운, ‘AA,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 출구의 제1자와 대구의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1연의 평측이 'AA'가 되어 측두를 범하여서 실패, 1연과 2연 사이에 'A -b'가 되어 실패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212/212'의 산체, 2연은 '昔時 - 今日, 人 - 水, 已沒 - 猶寒'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挑灯杖>

稟質非貪熱 측측평평측 焦心豈憚熬 평평측측평
終知不自潤 평평측측측 何處用脂膏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豪'韻(熬, 膏)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 출구의 제3자가 '평' 대신에 '측'을 써서 하삼측이 되었다. 왕발이나 노조린과 마찬가지로 낙빈왕의 경우도 이러한 음중요는 가급적 救해야 함에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2연 대구의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稟質 - 焦心, 非 - 豈, 貪熱 - 憚熬'의 관대, 2연은 '212/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詠塵>

淩波起羅襪 평평측평측 含風染素衣 평평측측평
別有知音調 측측평평측 聞歌應自飛 평평측측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微'韻(衣, 飛)으로 압운, 'bB, a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의 출구는 본구자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1연에서 'bB'가 되어 평두를 범하여서 실패가 있고, 1연과 2연 사이에 'B-a'가 되어 실패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淩波 - 含風, 起 - 染, 羅襪 - 素衣'의 관대, 2연은 '221/212'의 산체를 이루고 있다.

〈玩初月〉

忌滿光先缺 측측평평측 乘昏影暫流 평평측측평
 自能明似鏡 측평평측측 何用曲如鉤 평측측평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尤’韻(流, 鉤)으로 압운, ‘aB, bA’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 출구의 제1자와 대구의 제1자는 대구상구에 해당한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忌滿 - 乘昏, 光 - 影, 先缺 - 暫流’의 관대, 2연은 ‘自能 - 何用, 明 - 曲, 似鏡 - 如鉤’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詠照〉

寫月無芳桂 측측평평측 照日有花菱 측측측평평
 不持光謝水 측평평측측 翻將影學水 평평측측평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蒸’韻(菱, 水)으로 압운, ‘aA, b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2연 출구의 제1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연과 2연에서 ‘aA’가 되어 측두를 범하게 되어 실대 현상이, 1연과 2연 사이에 ‘A-b’가 되어 실점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寫月 - 照日, 無 - 有, 芳桂 - 花菱’의 공대, 2연은 ‘不持 - 翻將, 光 - 影, 謝水 - 學水’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憶蜀地佳人〉

東吳西蜀關山遠 평평평측평평측 魚來雁去兩難聞 평평측측측평평
 莫怪常有千行淚 측측평평평평측 只爲陽臺一片雲 측측평평측측평

평기식 수구불압운, 평성 ‘文韻(聞, 雲)’으로 압운, ‘aA, bB’의 평측 격식에 해당한다. 우선 1연 출구의 제3자는 갑중요에 해당되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연 출구에서 제4자에 ‘평’ 대신에 ‘측’을 쓰고 제6자에 ‘측’ 대신에 ‘평’을 써서 拗句가 되었다. 1연과 2연 사이에 ‘aA, bB’가 되어 평두와 측두를 범하여서 실패, 1연과 2연에서 ‘A-b’가 되어 실패 현상이 있다. 대장을 보면 1연은 ‘2221/2212’의 산체, 2연은 ‘莫怪 - 只爲, 常有 - 陽臺, 千行 - 一片, 淚 - 雲’의 관대를 이루고 있다.

왕력은 절구를 근체절구와 고체절구의 두 종류로 나누었다. 고체절구는 율시 보다 먼저 생겨서 평성운과 측성운이 모두 있으며 구 안의 평측도 율시 평측 규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근체절구는 율시 보다 나중에 생겨서 원칙적으로 평성운만을 사용하며(측성운은 드물게 보인다) 구 안의 평측은 율시 평측 규율의 제한을 받는다.³¹⁾ 따라서 근체시와 고시를 가늠하는 기준은 구 안에 평측의 규율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점대의 문제는 구 사이에 평측을 따지는 것이므로 넓게는 평측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한편 왕력은 ‘粘對’의 격률은 성당 이전에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점’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초당 시인들은 실패를 고려하지 않아서 진자양, 송지문, 두심언 등에게 모두 실패의 예가 있다.³²⁾ 이처럼 평측의 격식을 어긴 시구를 ‘拗’라고 하는데, 대신 ‘拗救’가 이루어지면 습律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체시는 압운에 있어 일운도저를 원칙으로 하며 통운이나 전운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원칙과 조건을 근거로 하여 사결 근체절구와 고체절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근체절구는 평측이 엄정해야 함으로 실패를 범해서는 안되지만 실패 현상은 어느 정도 용인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측 격식에 있어 율중요를 구하지 않은 경우, 고평, 고측, 하삼평, 하삼측을 범한 경우도

31) 왕력, 앞의 책 p.40

32) 왕력, 앞의 책 p.112, p.119

근체절구의 범주(류근체절구)에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실제로 唐人의 경우 을중요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하삼평이나 하삼측은 요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³³⁾ 아울러 적어도 1연에서 대장을 강구하고 전면 평성(드물게는 측성)으로 일운도저해야 하며, 절대로 전운이나 환운은 허용하지 않는다.

고체절구는 제2자, 제4자, 제6자에 拗句가 있는 경우, 같은 구 평측에 서로 실대가 발생한 경우, 실대와 아울러 앞 연과 뒷 연에서 실점과 실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압운할 때 측운으로 압운하면서 일운도저하지 않고 환운이나 통운을 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과 조건을 근거로 하여 사경 오언절구 52수에 대한 근체절구 여부를 판정해 보면 아래 <도표1>과 같다.

〈도표1〉

작품명(양발)	평측	粘對	대장	압운	형식
<晚留鳳州>	bA,aB	실점 실대	관대 산체	평성 '漁'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고체 오언절구
<羈春>	bA,bA	실점	관대 산체	평성 '微'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林塘懷友>	bA,bA	실점	공대 산체	평성 '麻'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山扉夜坐>	bA,bA	실점	공대 산체	평성 '眞'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春莊>	bA,bA	실점	공대 관대	평성 '元'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春遊>	aA,bA	실점 실대	관대 산체	평성 '陽'韻, '庚'韻	고체 오언절구
<春園>	bA,bA	실점	공대 관대	평성 '眞'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林泉獨飲>	aA,bA	실점 실대	관대 산체	평성 '眞'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고체 오언절구

33) 왕력, 앞의 책 p.96

<登城春望>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眞'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他鄉敘興>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眞'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夜興>	bA,bA	실점	공대 산체	평성 '眞'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臨江,其一>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眞'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臨江,其二>	bA,bA	실점	공대 산체	평성 '尤'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江亭夜月送別,其一>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文'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江亭夜月送別,其二>	bA,aB	無	관대 산체	평성 '寒'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別人,其一>	aB,bA	無	관대 산체	평성 '眞'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別人,其二>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歌'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別人,其三>	bB,bA	실대	공대 산체	평성 '灰'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고체 오언절구
<別人,其四>	ba,Ab	無	공대 산체	측성 '霽'韻 평기식수구불압운	측운 오언절구
<贈李十四,其一>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侵'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贈李十四,其二>	aB,bA	실대	공대 산체	평성 '麻'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贈李十四,其三>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眞'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贈李十四,其四>	bA,aB	無	공대 산체	평성 '灰'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早春野望>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靑'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山中>	bA,aB	無	관대 산체	평성 '東'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冬郊行望>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東'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寒夜思友,其一>	ab,Ab	실점	산체 산체	측성 '職'韻 측기식수구불압운	측운 오언절구
<寒夜思友,其二>	ba,Ab	無	공대 산체	측성 '屑'韻 평기식수구불압운	측운 오언절구
<寒夜思友,其三>	ba,Ab	無	공대 산체	측성 '沃'韻 평기식수구불압운	측운 오언절구
<始平晚息>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麻'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扶風晝屈離京 浸遠>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灰'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普安建陰題壁>	aB,bA	無	관대 산체	평성 '刪'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九日>	aB,bA	無	산체 산체	평성 '麻'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述懷擬古詩>	bA,aA	실대	산체 공대	평성 '先'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고체 오언절구

작품명(양형)	평측	접대	대장	입운	형식
<夜送趙縱>	aB,bA	無	산체 관대	평성 '先'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작품명(노조린)	평측	접대	대장	입운	형식
<登玉淸>	aB,bA	無	공대 산체	평성 '先'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曲池荷>	bA,aB	無	공대 산체	평성 '支'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浴浪鳥>	ab,Ab	실점	공대 공대	측성 '漾'韻 측기식수구불압운	측운 오언절구

<臨階竹>	bA,bA	실점	공대 산체	평성 '佳'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舍風蟬>	bA,aB	無	공대 관대	평성 '東'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葭川獨泛>	aB,bB	실대	공대 산체	평성 '先'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고체 오언절구
<送二兄入蜀>	bA,bA	실점	공대 산체	평성 '庚'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宿玄武二首, 其一>	bA,bA	실점	관대 관대	평성 '侵'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宿玄武二首, 其二>	bA,aB	無	공대 산체	평성 '侵'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九隴津集>	ab,Ab	실점	공대 관대	측성 '陌'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游昌化山精舍>	aB,aB	실점	관대 관대	평성 '豪'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작품명(낙빈왕)	평측	점대	대장	압운	형식
<在軍登城樓>	aB,bA	無	관대 산체	평성 '寒'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于易水送人>	AA,bA	실점 실대	산체 관대	평성 '寒'韻 측기식수구압운	고체 오언절구
<挑灯杖>	aB,bA	無	관대 산체	평성 '豪'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詠塵>	bB,aB	실점 실대	공대 산체	평성 '微'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고체 오언절구
<玩初月>	aB,bA	無	공대 관대	평성 '尤'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오언절구
<詠照>	aA,bB	실점 실대	공대 관대	평성 '蒸'韻 측기식수구불압운	고체 오언절구

이상 오언절구 52수 가운데 근체절구로 판정한 43수는 다시 두 종류로 나

눌 수 있다. 즉 실점, 실대, 요체가 없어 평측 격식이 엄정한 合律 오언절구와 실점과 요체는 있지만 합률에 가까운 類近體 오언절구로 나눌 수 있다. 가령 왕발의 절구 가운데 완전 합률 오언절구로는 <登城春望>, <他鄉岐興>, <臨江, 其一>, <江亭夜月送別, 其一>, <別人, 其一>, <贈李十四, 其一>, <贈李十四, 其二>, <贈李十四, 其三>, <贈李十四, 其四>, <始平晚息>, <普安建陰題壁>, <九日>의 12수가 있고, 노조린의 경우는 <登玉清>의 1수, 낙빈왕의 경우는 <在軍登城樓>, <玩初月>의 2수가 있다. 다음으로 완전 합률에 이르지 못했지만 類近體 五言絶句에 속하는 작품으로 왕발의 16수, 노조린의 9수, 낙빈왕의 1수가 있다.

이 가운데 측운 類近體 五言絶句 5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왕발의 경우 <別人, 其四>, <寒夜思友, 其一>, <寒夜思友, 其二>, <寒夜思友, 其三> 4수, 노조린의 경우 <浴浪鳥> 1수가 있다. 왕력은 오언절구에 측운을 사용한 것은 오언율시에 비해 비교적 흔히 보인다고 하였다.³⁴⁾ 이상과 같이 비록 측운으로 일운도저 하였지만 평측이 合律하면 근체 오언절구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고체절구는 왕발의 경우 <晚留鳳州>, <林泉獨飲>, <述懷擬古詩>, <春遊>, <別人, 其三>의 5수, 노조린의 경우 <葭川獨泛>의 1수, 낙빈왕의 경우 <于易水送人>, <詠塵>, <詠照>의 3수가 있다. 다음 <도표2>는 사결 칠언절구 12수에 대한 근체 절구 여부를 판정한 도표이다.

(도표2)

작품명(왕발)	평측	점대	대장	압운	형식
<秋江送別, 其一>	BA, bA	실점	관대, 관대	평성 '麻' 韻 측기식수구압운	근체 칠언절구
<秋江送別, 其二>	AA, bB	실점 실대	공대, 공대	평성 '陽' 韻 평기식수구압운	고체 칠언절구

34) 왕력, 앞의 책 p.82

〈蜀中九日〉	BB,aB	실점 실대	관대,관대	평성 '陽' 韻 측기식수구압운	고체 칠언절구
〈寒夜懷友雜體 其一〉	AA,ab	실대	공대,산체	평성 '陽' 韻 측성 '紙' 韻	고체 칠언절구
寒夜懷友雜體 其二〉	BA,ab	無	공대,산체	평성 '灰' 韻 측성 '霰' 韻	고체 칠언절구
〈河陽橋代賈郎中佳人 答楊中舍〉	aa,Ab	실대	관대,공대	측성 '遇' 韻 평기식수구압운	고체 칠언절구

작품명(노조린)	평측	점대	대장	압운	형식
〈登封大酺歌 其一〉	AB,aB	실점	관대,관대	평성 '陽' 韻 평기식수구압운	근체 칠언절구
〈登封大酺歌 其二〉	aA,aB	無	공대,관대	평성 '微' 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근체 칠언절구
〈登封大酺歌 其三〉	BB,bA	실대	산체,산체	평성 '尤' 韻 측기식수구압운	고체 칠언절구
〈登封大酺歌 其四〉	AB,bA	無	산체,산체	평성 '尤' 韻 측기식수구압운	고체 칠언절구
〈九月九日登玄武山 旅眺〉	BA,aB	無	관대,관대	평성 '東' 韻 측기식수구압운	고체 칠언절구

작품명(낙빈왕)	평측	점대	대장	압운	형식
<憶蜀地佳人>	aA,bB	실점 실대	산체,관대	평성 '文' 韻 평기식수구불압운	고체 칠언절구

이상 사결 칠언절구 12수 가운데 근체 칠언절구는 3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9수는 고체 칠언절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3수의 근체 칠언절구도 평측이 완전히 合律한 작품은 없고 실점이나 한 두 군데 요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가운데 노조린의 <登封大酺歌, 其二>시가 그나마 제5자에 요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점과 실대가 없는 合律 근체 칠언절구에 접근한 작품이다.

칠언절구는 오언절구와 달리 초당 시기에는 아직 완전한 시율을 확립하지 못한채 고체시에서 근체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平仄 分析

오언율시 측기식 수구불압운 평측 격식에 대해서는 이미 전장에서 살펴 본 바 있다.³⁵⁾ 한편 칠언율시는 오언율시의 연장이므로 측두에는 평성자 두 개를 덧붙여 평두로 만들고, 평두에는 측성자 두 개를 구수에 덧붙여 측두를 만든 것이므로 칠언율시 측기식불압운은 ‘bA, aB, bA, aB’의 격식이 된다.³⁶⁾ 따라서 오언절구와 칠언절구는 율시의 반을 자른 것이므로 오언절구 측기식 수구불압운은 ‘aB, bA’의 평측 격식이 되고, 칠언절구 측기식 수구불압운은 ‘bA, aB’의 평측 격식이 된다. 오언절구 평기식 수구불압운은 오언율시 측기식 수구불압운과 반대가 됨으로 ‘bA, aB’의 격식이 되고, 칠언절구 평기식 수구불압운은 칠언율시 측기식 수구불압운과 반대가 됨으로 ‘aB, bA’의 격식이 된다. 오언절구와 칠언절구의 측기식 수구압운과 평기식 수구압운의 격식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됨으로 생략한다. 그러면 사겔 오언(칠언)절구 평측 격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도표3)

평측격식	왕발	양형	노조린	낙빈왕	총계
bA, bA BA, bA(칠언)	8수 1수	0	3수	0	12수
aB, bA AB, bA(칠언)	15수	1수	1수 1수	3수	21수

35) ‘aB, bA, aB, bA’

36) 왕력, 앞의 책 p.75

bA, aB ba, Ab BA,ab(칠언) BA,aB(칠언)	4수 2수 1수	0	3수 1수 1수	1수	13수
aA, bA bA, aA AA, bA	2수 1수	0	0	1수	3수
bB, bA BB, bA(칠언)	1수	0	1수	0	2수
ab,Ab aB,aB AB,aB(칠언)	1수	0	3수 1수	0	5수
bB,aB aB,bB BB,aB(칠언)	0 1수	0	1수	1수	3수
AA,bB(칠언) aA,bB(칠언)	1수	0	0	2수	3수
AA,ab(칠언) aA,aB(칠언)	1수	0	1수	0	2수

이상 도표에서 보듯이 ‘aB, bA’의 평측 격식이 오언절구가 20수, 칠언절구 1수로 가장 많았다. 왕력은 이 평측 격식에 대해 평측을 가지고 볼 때 근체시 중의 표준적인 시이다. 비록 소수의 글자가 평측 격식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들은 본래 변통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하였다.³⁷⁾ 다음으로 ‘bA, aB’의 평측 격식이 오언절구가 9수, 칠언절구가 4수가 있다. 물론 이 평측 격식도 표준 율구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bA, bA’의 평측 격식이 오언절구 11수, 칠언절구 1수로 많았다. 이 평측 격식은 1연과 2연을 모두 동일하게 평측 배치한 것으로 리듬이 단조롭고, 1연과 2연 사이가 ‘측-평’이 되어 실점을 범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 구에 적어도 ‘bA’의 평측 격식을 사용한 경우가 왕발은 41연, 양형은 1연, 노조린은 14연, 낙빈왕은 4연으로 나타나 사결 오언(칠

37) 왕력, 앞의 책 p.80

언)절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사결은 이 단조로운 격식을 타파하기 위해 출구와 대구의 제1자에 요구를 사용하여 대구상구하거나, 1연이나 2연 출구에서 ‘평평측평측’의 특수구식을 써서 본구자구하였다.

6. 拗救 分析

‘拗’는 4구 가운데 평측의 격식에 맞지 않는 운자를 말하며 시인들은 이러한 拗句에 대해 왕왕 救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拗救가 이루어지면 율구로 취급하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古句로 간주한다.³⁸⁾ 요구는 크게 本句自救와 對句相救로 나눈다. 본구자구는 하나의 구안에서 요를 써서 이를 구한 것이고, 대구상구란 출구의 요를 대구로 구한 것이다.³⁹⁾

1) 本句自救

오언의 ‘평평측평측’과 칠언의 ‘측측평평측평측’의 구식이 가장 대표적인 본구자구에 해당한다. 오언의 경우 원래 ‘평평평측측’의 제3자에 ‘평’ 대신에 ‘측’을 써서 요가 된 것을 제4자에 ‘평’으로 救한 것이다. 칠언의 경우는 원래 ‘측측평평평측측’의 제5자에 ‘평’ 대신에 ‘측’을 써서 요가 된 것을 제6자에 ‘평’으로 구한 것이다. 왕력은 오언의 제4자와 칠언의 제6자는 중요한 절주점 이어서 평측이 맞지 않으면 ‘二四六分明’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평측상의 특수 형식이라고 규정하였다.⁴⁰⁾ 이 경우 오언의 제4자와 칠언의 제6자가 고평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구를 목적으로 평측을 호환했기 때문에 고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⁴¹⁾

38) 왕력, 위의 책 p.91

39) 왕력, 위의 책 p.91

40) 왕력, 위의 책 p.100

41) 강성위, 앞의 책 p.62

다음으로 칠언절구의 경우 ‘평평측측측평평’(A)식과 ‘측측평평측측평’(B)식에서 제1자에 ‘평’ 대신에 ‘측’을, ‘측’ 대신에 ‘평’을 쓰고, 대신에 제3자에 ‘측’ 대신에 ‘평’, ‘평’ 대신에 ‘측’을 써서 본구자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 사결 오언(칠언)절구 가운데 본구자구에 해당되는 시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도표4)

작자/형식/작품명	언	시구	본구자구
왕발/오언/<羈春>	2연/출구	還傷北園裏	평평측평측
왕발/오언/<林塘懷友>	1연/출구	芳屏書春草	평평측평측
왕발/오언/<別人,其四>	1연/출구	霜華淨天末	평평측평측
왕발/오언/<寒夜思友,其一>	1연/대구	他鄉變容色	평평측평측
왕발/오언/<寒夜思友,其一>	2연/대구	相思此何極	평평측평측
왕발/오언/<寒夜思友,其二>	2연/대구	如何故人別	평평측평측
왕발/오언/<寒夜思友,其三>	1연/출구	朝朝翠山下	평평측평측
왕발/오언/<寒夜思友,其三>	2연/대구	清尊湛芳綠	평평측평측
왕발/칠언/<秋江送別,其一>	2연/대구	復看津樹隱離舟	측평평측측평평
왕발/칠언/<蜀中九日>	2연/대구	鴻鴈那從北地來	평측측평측평평
왕발/칠언/<寒夜懷友雜體,其一>	1연/출구	北山煙霧始茫茫	측평평측측평평
왕발/칠언/<寒夜懷友雜體,其二>	2연/대구	相望相思不相見	평측평평측평측
왕발/칠언/<河陽橋代竇郎中佳人答楊中舍>	2연/출구	判知秋夕帶啼還	측평평측측평평
노조린/오언/<登玉清>	2연/출구	徘徊拜真老	평평측평측
노조린/오언/<浴浪鳥>	2연/대구	長懷白雲上	평평측평측
노조린/오언/<浴浪鳥>	1연/대구	群飛動輕浪	평평측평측
노조린/오언/<送二兄入蜀>	1연/출구	此中一分手	측평측평측
노조린/오언/<宿玄武,其二>	1연/출구	庭搖北風柳	평평측평측
노조린/오언/<九隴津集>	1연/대구	澄澄水華碧	평평측평측
낙빈왕/오언/<詠塵>	1연/출구	凌波起羅襪	평평측평측

왕력은 ‘평평측평측’의 특수 형식에 대해 오언율시 미런 출구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 또한 시인들의 풍조였다고 하였다. 42) 이것은 오언율시 측기식 미런 출구라야 ‘평평측평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 사걸의 통계를 보면 7수의 작품에서 출구가 아닌 1연과 2연의 대구에서 ‘평평측평측’의 구식을 사용하였다. 이 구식을 출구가 아닌 대구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모두 측성운으로 압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오언절구에 측운을 사용하는 것은 오언율시에 비해 비교적 흔히 보이고, 오언절구의 출구에 평각을 사용하는지 또는 측각을 사용하는지는 일정하지 않다고 하였다. 43)

칠언절구의 경우는 제1자에 ‘평’ 대신에 ‘측’을 쓰고 이를 구하기 위해 제3자에 ‘측’ 대신에 ‘평’을 써서 본구자구하였다. 왕력은 이런 경우를 갑종요라고 칭하고 구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시인들이 알게 모르게 拗救 국면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44)

2) 對句相救

오언절구의 경우 대구의 제1자로 구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다. 45) 즉 ‘평평평측측’(b)식에서 제1자에 ‘평’ 대신에 ‘측’을 쓰고, 대신에 대구 ‘측측측평평’(A)식에서 제1자에 ‘측’ 대신에 ‘평’을 써서 대구상구하였다. 칠언절구의 경우는 대구의 제1자로 구하는 것으로 측성의 요를 평성으로 구하는 것이다. 46) 사걸 오언(칠언) 절구 가운데 대구상구에 해당되는 시구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42) 왕력, 앞의 책 p.101

43) 왕력, 앞의 책 p.82

44) 왕력, 앞의 책 p.91

45) 왕력, 앞의 책 p.92

46) 왕력, 앞의 책 p.92

〈도표5〉

작자/형식/작품명	연	시구	평측관계
왕발/오언/<晚留鳳州>	1연	寶雞辭舊役 仙鳳歷遺墟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왕발/오언/<羈春>	1연	客心千里倦 春事一朝歸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왕발/오언/<山崖夜坐>	1연	抱琴開野室 攜酒對情人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왕발/오언/<夜興>	1연	野煙含夕渚 山月照秋林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왕발/오언/<臨江, 其二>	1연	去驂嘶別路 歸棹隱寒洲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왕발/오언/<江亭夜月送別, 其二>	1연	亂煙籠碧砌 飛月向南端	측평측측측 평측측평평
왕발/오언/<別人, 其一>	2연	自然堪下淚 誰忍望征塵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왕발/오언/<別人, 其二>	2연	送君南浦外 還望將如何	측평평측측 평측평평평
왕발/오언/<始平晚息>	2연	客行朝復夕 無處是鄉家	측평평측측 평측평평평
양형/오언/<夜送趙縱>	2연	送君還舊府 明月滿前川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노조린/오언/<送二兄入蜀>	2연	此中一分手 相顧憐無聲	측평측평측 평측평평평
노조린/오언/<宿玄武, 其一>	2연	已乘千里興 還撫一弦琴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낙빈왕/오언/<于易水送人>	2연	昔時人已沒 今日水猶寒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낙빈왕/오언/<玩初月>	1연	自能明似鏡 何用曲如鉤	측평평측측 평측측평평
왕발/칠언/<寒夜懷友雜體二首>	2연	故人故情懷故宴 相望相思不相見	측평측평평측측 평측평평평평측

오언절구의 경우는 14회에 걸쳐서 ‘bA’ 식에서 대구의 제1자로 대구상구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칠언절구의 경우는 1회에 불과해서 대구상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도 될 듯 하다. 이상에서 보듯이 다른 요구 방법인 평성의 요를 측성으로 구한다거나 칠언 대구의 제3자로 구하는 방법을 한 수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당시기에 대구상구의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극도로 제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本句自救하면서 동시에 對句相救한 경우

측운절구의 경우 출구 ‘A’식(측측평평평)에서 제3자가 ‘측’ 대신에 ‘평’을 써서 하삼평을 범한 경우 대구에서 제3자에 ‘측’으로 구해야 한다. 이 경우 측운인 경우는 대구, 평운인 경우는 출구 ‘b’식(평평평측측)에서 제3자에 ‘측’을 쓰고 대신 제4자에 ‘평’을 써서 호환함으로써 본구자구 하면서 출구와 다시 대구상구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47)

(도표6)

작자/형식/작품명	연	시구	평측관계
왕발/오언/<寒夜思友,其二>	2연	鴻鴈西南飛 如何故人別	평측평평평 평평측평측
왕발/오언/<寒夜思友,其三>	2연	復此遙相思 清尊湛芳綠	측측평평평 평평측평측
노조린/오언/<宿玄武,其二>	1연	庭搖北風柳 院繞南溟禽	평평측평측 측측평평평

47) 왕력은 본구자구하면서 대구상구한 것으로 보지 않고 평측의 특수형식에서 다루었다.

7. 下三平(下三仄) 및 孤平(孤仄) 分析

근체시 오언시와 칠언시에서 마지막 세자가 모두 평성으로 이어지거나 모두 측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하삼평’ 또는 ‘하삼측’이라고 한다. 이러한 하삼평이나 하삼측은 요체로 간주하며 하삼측은 주로 출구에 하삼평은 근체시가 평성으로 압운하기 때문에 주로 대구에 나타난다. 왕력은 특히 하삼평인 ‘평평평’에 대해 ‘고체시의 표준적인 평측 격식이며 근체시가 극력 피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48) 고측은 평성 운자 사이에 측성 운자가 위치한 것을 말하고, 반대로 고평은 측성 운자 사이에 평성 운자가 끼인 것을 말한다. 왕력은 ‘고평은 시인들의 큰 금기에 해당한다. 일찍이 <全唐詩>에서 고평을 범한 시구를 찾아보았는데 겨우 두 개의 예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까지 하였다. 49) 다음표는 사결 오언(칠언)절구에 나타난 하삼측(하삼평)과 고측(고평)현상을 정리한 도표이다.

〈도표7〉

작자/형식/작품명/고측(고평),하삼측(하삼평)	연	시구	평측
왕발/오언/<晚留鳳州>/고측	2연(대구)	青山明月初	평평평측평
왕발/오언/<林泉獨飲>/고측	1연(출구)	丘壑經塗賞	평측평평측
왕발/오언/<江亭夜月送別,其一>/고측	1연(출구)	江送巴南水	평측평평측
왕발/오언/<別人,其二>/고측	1연(출구) 1연(대구)	江上風煙積 山幽雲霧多	평측평평측 평평평측평
왕발/오언/<山中>/고측	2연(대구)	山山黃葉飛	평평평측평
왕발/오언/<冬郊野望>/고측	1연(대구)	梨疎林葉紅	평평평측평
왕발/오언/<始平晚息>/고측	1연(출구)	觀闕長安近	평측평평측
왕발/오언/<普安建陰題壁>/고측	1연(출구)	江漢深無極	평측평평측

48) 왕력, 앞의 책 p.90

49) 왕력, 앞의 책 p.99

왕발/오언/<扶風晝屆離京浸遠>/고측	2연(대구)	行路方悠哉	평측평평평
왕발/칠언/<秋江送別, 其一>/고측	1연(출구)	早是他鄉值 早秋	측측평평평 측평
양형/오언/<夜送趙縱>/고측	1연(대구)	由來天下傳	평평평측평
노조린/오언/<曲池荷>/고측	2연(대구)	飄零君不知	평평평측평
노조린/오언/<含風蟬>/고측	2연(대구)	還將衰鬢同	평평평측평
노조린/오언/<遊昌化山精舍>/고측	2연(대구)	方知人事勞	평평평측평
노조린/칠언/<<登封大酺歌, 其一>/고측	1연(대구)	天子垂衣曆 數長	평측평평측 측평
노조린/칠언/<<登封大酺歌, 其二>/고측	2연(대구)	妙舞清歌歡 未歸	측측평평평 측평
노조린/칠언/<登封大酺歌, 其三>/고측	1연(대구)	仙鶴徘徊天 上遊	평측평평평 측평
노조린/칠언/<九月九日登玄武山旅眺>/고측	2연(대구)	萬里同悲鴻 鴈天	측측평평평 측평
낙빈왕/오언/<在軍登城樓>/고측	1연(출구)	城上風威冷	평측평평측
낙빈왕/칠언/<憶蜀地佳人>/고측	1연(출구)	東吳西蜀關 山遠	평평평측평 평측
왕발/오언/<述懷擬古詩>/고평	1연(출구) 2연(출구)	僕生二十祀 下策圖富貴	측평측측측 (고구) 측측평측측 (고구)
노조린/오언/<九隴津集>/고평	1연(출구)	落落樹陰紫	측측측평측
노조린/칠언/<登封大酺歌, 其一>/고평	2연(출구)	九州四海常 無事	측평측측평 평측
왕발/오언/<春園>/하삼측	1연(출구)	山泉兩處晚	평평측측측
왕발/오언/<臨江, 其二>/하삼측	2연(출구)	江臯木葉下	평평측측측
왕발/오언/<江亭夜月送別, 其二>/하삼측	1연(출구)	亂煙籠碧砌	측평측측측
왕발/오언/<述懷擬古詩>/하삼측	1연(출구)	僕生二十祀	측평측측측
노조린/오언/<曲池荷>/하삼측	1연(출구)	浮香繞曲岸	평평측측측
노조린/오언/<送二兄入蜀>/하삼측	1연(출구)	關山客子路	평평측측측

낙빈왕/오언/<挑灯杖>/하삼측	2연(출구)	終知不自潤	평평측측측
왕발/오언/<寒夜思友,其一>/하삼평	2연(출구)	月下調鳴琴	측측평평평
왕발/오언/<寒夜思友,其二>/하삼평	2연(출구)	鴻鴈西南飛	평측평평평
왕발/오언/<扶風晝屆離京浸遠>/하삼평	2연(대구)	行路方悠哉	평측평평평
왕발/오언/<述懷擬古詩>/하삼평	2연(대구)	上策懷神仙	측측평평평
노조린/오언/<送二兄入蜀>/하삼평	2연(대구)	相顧憐無聲	평측평평평
노조린/오언/<宿玄武,其二>/하삼평	1연(대구)	院繞南溟禽	측측평평평
노조린/오언/<九隴津集>/하삼평	2연(출구)	復有翻飛禽	측측평평평

고측의 경우는 ‘B’식(평평측측평, 측측평평측측평)에서 오언의 경우 제3자에, 칠언의 경우 제5자에 각각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왕력은 이런 요를 을중요라고 칭하며 출구의 제3자와 제5자에서 ‘측’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 도표에서 보듯이 왕발은 9회, 양형은 1회, 노조린은 7회에 걸쳐서 이런 요체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a’식(측측평평측, 평평측측평평측)에서 오언의 경우 제1자에, 칠언의 경우 제3자에 ‘측’ 대신에 ‘평’을 써서 고측 현상이 발생하였다. 왕력은 이런 요를 갑중요라고 칭하며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이상 도표에서 왕발은 3회, 낙빈왕은 1회 발생하였다.

고평의 경우는 오언절구 ‘a’식(측측평평측)에서 제3자에 ‘평’ 대신에 ‘측’을 써서 발생하였다. 왕력은 이런 요를 을중요라고 칭하며 대구 제3자에서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 도표에서 보듯이 노조린의 <九隴津集>시에서 유일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칠언절구 ‘a’식(평평측측평평측)에서 제1자에 ‘평’ 대신에 ‘측’을 써서 고평 현상이 발생하였다. 왕력은 이런 요를 갑중요라고 칭하며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노조린의 <登封大酺歌,其一>에서 유일하게 이런 현상이 보인다.

다음으로 하삼측의 경우는 오언 ‘b’식(평평평측측)에서 제3자에 ‘평’ 대신에

‘측’을 써서 발생하였다. 왕력은 이러한 요를 을중요라고 칭하며 대구 제3자에서 ‘평’으로 구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상 도표에서 보듯이 왕발은 4회, 노조린은 2회, 낙빈왕은 1회에 걸쳐서 하삼측이 발생하였지만 대구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하삼평의 경우는 오언의 ‘A’식(측측측평평)에서 제3자에 ‘측’ 대신에 ‘평’을 써서 발생하였다, 왕력은 이런 요를 을중요라고 칭하며 출구 제3자에서 ‘평’ 대신에 ‘측’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 도표에서 보듯이 왕발이 4회, 노조린이 3회에 걸쳐 각각 하삼평을 범하였다.

하삼평은 고평과 함께 성당 근체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인데, 초당의 경우는 하삼측 보다는 발생 빈도가 적었다. 근체시에서 하삼측은 하삼평 만큼 심각한 병폐가 아니기 때문에 시인들이 종종 사용하여 통상 습律로 취급한다고도 하였다.⁵⁰⁾ 그리고 하삼평의 경우도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므로 요의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따로 구제할 방법이 별도로 없어서 하삼평이 쓰인 시는 요체라고 할 수 있다.⁵¹⁾ 다만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하삼평과 하삼측의 경우 오언절구에서 발생하였고, 칠언절구는 한 수도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8. 對仗 分析

왕력은 근체시의 대장은 주로 율시와 배율에 사용하는 것이지 절구에서는 대다수가 대장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⁵²⁾ 仇兆鰲는 이에 대해 ‘오언절구는 漢魏의 樂府에서 시작하여 六朝 때에 점차 번성했고 당인에 이르러 더욱 성하였다. 대체로 시작과 끝에 대장을 쓰지 않는 것은 단숨에 내달아 저절로 수미를 이루니 이것이 正法이다’라고 하였다.⁵³⁾ 이상의 설명대로라면 절

50) 강성위, 앞의 책 p.74

51) 강성위, 앞의 책 p.77

52) 왕력, 앞의 책 p.142

53) 왕력, 앞의 책 p.926

구는 포착된 감흥을 단숨에 내달아 표현해야 하는 관계로 대장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결의 대장 상황을 정리해 보면 완전히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왕발은 오언절구 34수 가운데 31수, 칠언절구는 6수 전체를 1연에 대장하였다. 노조린은 오언절구 11수 가운데 11수, 칠언절구는 5수 가운데 3수를 1연에서 대장하였다. 낙빈왕은 오언절구 6수 가운데 5수를 1연에서 대장하였다. 이상의 통계를 보면 오언절구의 경우 51수 가운데 47수를 1연에서 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연과 2연을 모두 대장한 경우도 왕발 3수, 노조린 5수, 낙빈왕 2수가 있다. 사결 오언(칠언) 절구의 경우 거의 1연을 대장하였으니 왕력의 설명대로라면 이론적으로 율시의 후반 두 연을 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⁴⁾ 사결 오언(칠언)절구 작품 가운데 1연과 2연의 대장 여부와 대장의 범주를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도표8)

제1연	제2연	왕발	양형	노조린	낙빈왕	총계
공대	공대	<秋江送別, 其二> <寒夜懷友雜體, 其二>	無	<浴浪鳥>	無	3수
공대	관대	<春莊>, <春園>	無	<含風蟬> <九隴津集> <登封大酺歌其二>	<玩初月> <詠照>	7수
관대	관대 공대	<秋江送別, 其一> <蜀中九日> <河陽橋代竇郎中佳人答楊中舍>	無	<遊昌化山精舍> <宿玄武其一> <登封大酺歌其一> <九月九日登玄武>	無	7수

54) 왕력, 앞의 책 p.153 : 절구는 율시의 두 연을 절취한 것이어서 수련과 미련을 절취한 것이라면 대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후반의 두 연을 절취한 것이라면 앞 연에 대장을 사용하고 뒷 연에는 대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반의 두 연을 절취한 것이라면 앞 연에 대장을 사용하지 않고 뒷 연에는 대장을 사용하며, 가운데 두 연을 절취한 것이라면 전체에 대장을 사용한다.

				山旅眺>		
공대	산체	<林塘懷友> <山扉夜坐> <登城春望> <他鄉鼓興> <夜興> <臨江其一> <臨江其二> <江亭夜月送別其一> <別人,其二> <別人其三> <別人,其四> <贈二十四,其一> <贈二十四,其二> <贈二十四,其三> <贈二十四,其四> <早春野望> <山中> <冬郊行望> <寒夜懷友,其一> <寒夜懷友,其二> <始平晚息> <扶風晝屈離京浸遠> <寒夜懷友雜體,其一>	無	<登玉清> <曲池荷> <臨階竹> <葭川獨泛> <送二兄入蜀> <宿玄武其二>	<詠塵>	30수
관대	산체	<晚留鳳州> <羈春> <春遊> <林泉獨飲> <江亭夜月送別其二> <別人其一> <普安建陰題壁>	無	無	<在軍登城樓> <挑灯杖>	9수
산체	공대 관대	<述懷擬古詩>	無	<夜送趙縱>	<于易水送人> <憶蜀地街人>	4수
산체	산체	<寒夜懷友,其一> <九日>	無	<登封大酺歌其二> <登封大酺歌其四>	無	4수

이상 도표에서 보듯이 오언(칠언)절구 64수 가운데 1연을 대장한 경우가 56수가 되고, 그 56수 가운데 정교한 공대로 대장한 경우가 34수가 된다. 55)

55) 왕력, 앞의 책 p.153 : 같은 종류의 명사끼리 대를 이루면 工對라고 하고, 그렇지 않음

왕력은 율시의 수련과 미련의 두 연을 절취하여 이루어진 것 즉 전체에 대장을 사용하지 않은 형식은 주로 칠언절구에 비교적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율시의 뒤쪽 반을 절취하여 이루어진 것 즉 수련에 대장하는 형식이 오언절구에 비교적 많다고 하였다. 56) 칠언절구의 경우를 보면 왕발은 6수 전체에 걸쳐 1연을 대장하였고, 노조린은 5수 가운데 3수를 1연에서 대장하고 있어 오언절구의 대장 수법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언(칠언)절구 가운데 1연과 2연 전체를 대장한 작품이 8수, 1연과 2연을 모두 대장하지 않은 작품이 3수, 2연만을 대장한 작품이 4수가 있다. 사결 오언(칠언) 전체 64수 가운데 1연과 2연을 모두 대장하지 않은 작품이 3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초당의 절구는 율시의 영향을 받아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1연 정도는 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用韻 分析

근체시의 용운은 매우 엄격하여 절구, 율시, 배율을 막론하고 반드시 일운도 저해야 하며 통운을 허용하지 않는다. 57) 오언절구는 오언율시의 반을 자른 것이므로 첫 구에 압운하지 않는 것이 정례이다. 반면에 칠언절구는 칠언율시의 수구와 마찬가지로 운을 단 것이 정례이고 운을 달지 않은 것이 변례이다. 왕력은 칠언절구의 변례가 오언절구의 변례보다 다소 많다고 하였다. 58) 사결 오언절구의 수구 압운 여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면 寬對라고 할 수 있다.

56) 왕력, 앞의 책 p.36

57) 왕력, 앞의 책 p.44

58) 왕력, 앞의 책 p.36

〈도표9〉

수구압운	왕발	양형	노조린	낙빈왕	총계
측기식 수구불압운	<春遊> <林泉獨飲> <登城春望> <他鄉鼓興> <臨江,其一> <江亭夜月送別其一> <別人,其一> <別人,其二> <贈二十四,其一> <贈二十四,其三> <早春野望> <山中> <冬郊行望> <寒夜懷友,其一> <始平晚息> <扶風晝屈離京浸遠> <普安建陰題壁> <九日>	<夜送 趙縱>	<登玉清> <浴浪鳥> <葭川獨泛> <九隴津集> <遊昌化山精 舍>	<在軍登城 樓> <挑灯杖> <玩初月> <詠照>	28수
측기식 수구압운	無	無	無	<于易水 送人>	1수
평기식 수구불압운	<晚留鳳州> <羈春> <林塘懷友> <山扉夜坐> <春莊>, <春園> <夜興>, <臨江其二> <江亭夜月送別其二> <別人,其二> <別人,其四> <贈二十四,其二> <贈二十四,其四> <山中> <寒夜懷友,其二> <寒夜懷友,其三> <述懷擬古詩>	無	<曲池荷> <臨階竹> <含風蟬> <送二兄入蜀> <宿玄武其一> <宿玄武其二>	<詠塵>	24수
평기식 수구압운	無	無	無	無	0수

이상의 통계를 종합해 보면 오언절구의 경우 전체 52수 가운데 측기식이나

평기식을 막론하고 수구를 압운하지 않은 경우가 51수가 된다. 그리고 오언절구임에도 불구하고 측기식이 아닌 평기식으로 시작하여 수구에 압운하지 않은 작품도 대등하게 많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왕력은 만약 수구를 압운하면 운에 구속되어 대장을 이루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구에 운을 달지 않는 것을 선호하였다고 하였다. 59)

한편 사결 칠언절구의 수구압운 여부를 정리해 보면 평기식 수구압운 4수, 평기식 수구불압운 2수, 측기식 수구압운 4수, 환운한 작품이 2수가 있다. 칠언절구의 경우 칠언율시를 반으로 자른 것이므로 평기식에 수구를 압운한 것이 정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통계에서 보듯이 측기식 수구압운 형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오언절구가 대부분 수구불압운인 것과 달리 칠언절구는 수구를 압운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근체시는 평성운을 사용한 것이 정격이어서 측성운을 사용한 경우는 드물다. 왕력은 측성운을 사용한 율시와 절구는 근체시와 고체시의 접경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입율한 고풍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60) 이 경우 측운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고체시는 아니며 율구의 평측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체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왕력은 오언절구의 경우는 측운을 사용한 것이 오언율시에 비해 비교적 흔하게 보인다고 하였다. 61) 따라서 측성운을 사용했다고 모두 고체시는 아니며 평측 격식이 엄정하다면 근체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사결의 오언절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5수의 측운 근체 오언절구가 있다.

59) 왕력, 앞의 책 p.39

60) 왕력, 앞의 책 p.51

61) 왕력, 앞의 책 p.82

〈도표10〉

작품명(왕발)	평측	대장	압운	형식
<別人,其四>	無	공대 산체	측성 '霽'韻 평기식수구불압운	측운 오언절구
<寒夜思友, 其一>	실점	산체 산체	측성 '職'韻 측기식수구불압운	측운 오언절구
<寒夜思友, 其二>	無	공대 산체	측성 '屑'韻 평기식수구불압운	측운 오언절구
<寒夜思友, 其三>	無	공대 산체	측성 '沃'韻 평기식수구불압운	측운 오언절구

작품명(노조린)	평측	대장	압운	형식
<浴浪鳥>	실점	공대 공대	측성 '漾'韻 측기식수구불압운	측운 오언절구

이상 도표에서 보듯이 측운 오언절구 5수의 압운 현상을 보면 수구를 압운하지 않고 모두 측성운으로 일운도저하였다. 다음으로 평측 격식을 보면 2수에서 실점을 범하기는 했지만 실대나 요체가 없고 평측이 엄정하여 근체 오언절구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Ⅲ. 結論

초당사걸 오언(칠언)절구 가운데 왕발의 오언절구는 제작된 작품의 수량 뿐만 아니라 평측 격식면에서 근체시의 시율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왕발의 오언절구 34수 가운데 완전 합률에 해당하는 오언절구가 12수, 류근체절구가 16수, 고체절구가 5수가 있다. 반면에 칠언절구의 경우 총 6수 가운데 근체절구는 1수에 불과하여 수량면이나 시율 형식면에서 공과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언절구 34수 가운데 적어도 28수가 근체의 시율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胡應麟은 『詩藪』 內編 近體下에서 “唐初五言絶, 子安諸作已入妙境, 七言初變梁陳, 音律未諧.” (초당에 이르러 오언절구는 왕발의 작품 가운데 오묘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칠언은 양진에서 처음 변하여 음률이 아직 조화롭지 못하였다.)라고 왕발 오언절구의 시율 정착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62)

다음으로 노조린의 경우를 보면 전체 오언절구 11수 가운데 합률의 오언절구 1수, 류근체 오언절구 9수, 고체절구 1수로 분류할 수 있다. 노조린의 경우 제작된 수량이 많지 않지만 11수 가운데 10수가 근체 오언절구의 시율을 갖추고 있어 왕발과 더불어 근체 절구 시율 확립에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다음으로 초당 시율 확립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율시의 점대 원칙을 절구에 활발하게 운용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언절구라는 생소한 형식을 운용하면서 1연과 2연 사이를 이어주는 ‘粘’에 대해서는 다소 서툴고 관대한 편이었지만 율사에서 중요시 하는 ‘對’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오언절구의 경우 왕발은 8회, 노조린은 6회, 칠언절구의 경우 왕발은 3회, 노조린은 1회에 걸쳐 실점을 범하고 있다. 그러나 실대의 경우 오언절구에서 왕발은 6회, 노조린은 1회, 칠언절구에서 왕발은 4회, 노조린은 1회에 걸쳐 평측이 어긋나 있다. 이상의 통계로 보면 왕발의 실대의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실점과 실대를 동시에 범한 작품이 많았다.

사결은 1연을 거의 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교한 공대의 수법을 동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오언(칠언) 절구 전체 65수 가운데 56수가 1연을 대장하였고, 그 중에 34수가 정교한 공대를 시도하였다. 사결은 오언절구의 경우 대부분 수구를 압운하지 않았기 때문에 1연에 대장하기 쉬웠다. 또한 오언 율시의 경우 초당 시기에 세 연 이상을 대장하는 풍족한 대장을 한 경우가 중간 두 연을 대장한 것보다 그다지 적지 않은 것도 오언(칠언)절구의 대장에 영향을 준 것 같다. 63)

62) 胡應麟, 『詩藪』 p.327(廣文書局印行, 臺灣)

평측의 拗體 가운데 고평, 고측, 하삼평, 하삼측을 범한 시구에서 갑중요의 경우에는 구할 필요가 없지만 을중요에 해당하는 拗句는 가급적 구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결의 경우 오언의 제3자와 칠언의 제5자의 요체에 대해서 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반면에 제1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본구자구와 대구상구는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拗救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당 시기에는 아직 다양한 拗救 방법이 강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운 현상을 보면 오언절구 52수 가운데 5수가 측성, 1수가 평성으로 환운한 것을 제외하고는 46수가 평운으로 엄정하게 일운도저 하였다. 한편 칠언절구의 경우는 총 12수 가운데 1수가 측성, 2수가 평성과 측성으로 환운한 것을 제외하고 9수가 평운으로 일운도저하였다. 압운 배치에 있어서도 『廣韻』의 同用과 獨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어 이미 용운 활용의 엄정함과 숙달의 묘미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

63) 왕력, 앞의 책 p.138

參考文獻

- 蔣清翊,『王子安集註』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
- 徐明霞,『楊炯集,盧照隣集』北京:中華書局,1980
- 祝尙書,『盧照隣集箋注』上海古籍,1994
- 陳熙晉,『駱臨海集箋注』世界書局印行,1981
- 李雲逸,『盧照隣集校注』中華書局,1998
- 陶敏,易淑瓊 校注,『沈佺期宋之問集校注』(中華書局,2001年)
『全唐詩』北京:中華書局,1972
- 倪木興,『初唐四傑詩選』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1
- 王力,『漢語詩律學』王力著,上海教育出版社,1958
『中國詩律學』(송용준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05
- 方回,『瀛奎律髓』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
- 胡應麟,『詩藪』臺北:廣文書局,
- 黃盛雄著,『唐人絕句研究』(文史哲出版社,1979)
- 劉永濟選釋,『唐人絕句精華』(人民文學出版社,1990)
- 成基玉,『漢詩作법의 실제』서울: 지식과감성, 2017
- 員平平,「初唐四傑詩律研究」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 論文,2011
- 姜聲尉,「拗와 拗救」,『中國文學』제 23집

Abstract

Research on the quatrain with five(seven)Chinese characters of the Four-talented Poets.

An Byungkuk

This article survey poetic rhythm of the Four-talented Poets. They are poets in the early Tang Dynasty, including WangBo, YangJiong, Lu Zhaolin, Luo Binwang.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tonal rule, antithesis and the rhyming on the quatrain with five(seven)Chinese characters of the Four-talented Poets.

This article takes 64 modern style poems with with five(seven)Chinese characters. Part 1 explains the method of the theme, and value of the research. Part 2 divided into nine sections. Part 2 have more detailed analysis of tonal rule, poetry rhythm, antithesis on the quatrain with five(seven)Chinese characters. Every sections made a statistic and summary charts on antithesis. It helps to led into the conclusion of the maturing into modern style poems. As results, Among the 34 poems of the WangBo's quatrain with five Chinese characters at least 28 poems can fit perfect poetic rhythm of the modern style prosodies. The Rhyme of 28 poems aree precise and comply with an even tone Rhyme. Lu Zhaolin's quatrain with five Chinese characters also can fit perfect poetic rhythm of the modern style prosodies nealy above 90%.

Key Words : Four-talented Poets, quatrain with five(seven)Chinese characters, tonal rule, rhyming, modern style poems

투 고 일 : 2019. 4. 10. / 심 사 일 : 2019. 4. 15. ~ 2019. 5. 15. / 게재확정일 : 2019. 5. 20.